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이슈리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GGP MOU 체결과 의미 : 한국가족패널조사의 국제비교 연구 확장**
  조선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정부지원 활동과 향후계획**
  강민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단기육아휴직제 시행의 의의와 향후 과제**
  구미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여성정책연구원–GGP MOU 체결과 의미 : 한국가족패널조사의 국제비교 연구 확장

조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2026년 7월 6일(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WDI)과 세대와 젠더 프로그램(Generations and Gender Programme, GGP) 간 연구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1]. GGP는 네덜란드 학제간인구학연구소(Netherlands Interdisciplinary Demographic Institute, NIDI)가 주관하는 국제 연구 프로그램으로, '세대와 젠더 조사(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GGS)'라는 국제 인구·가족 종단조사를 통해 가족과 개인의 생애 변화를 장기간 추적하고 국가 간 비교자료를 구축해 왔다. GGS-II Wave 1에는 한국을 포함한 25개 이상의 국가·지역이 참여하였거나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2].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6년 착수된 한국가족패널조사(Korean Family Panel Survey, KoFPS) 1차 웨이브에 GGS-II Wave 1의 국제 공통문항을 포함함으로써 한국 GGS를 수행하고 있다(조선미 외, 2025:56-57).

한국가족패널조사(2026~)는 여성가족패널조사(2007~2025)의 후속조사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약 20년간 축적한 가족 종단조사의 성과를 이어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생활의 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추적하도록 설계되었다. GGS의 도입으로 한국 가족패널은 기존의 종단적 조사체계에 국제비교의 관점을 더해 한국의 가족변화를 다른 국가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GGP의 협력은 2023년 GGS 참여를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꾸준히 이

1) Generations and Gender Programme. (2026.7.8.). GGP Korean National Team Visits GGP Central Hub. https://www.ggp-i.org/news/general-news/ggp-korean-national-team-visits-ggp-central-hub/ (최종 접속일: 2026.9.28.). Generations & Gender Programme

2) Generations and Gender Programme, GGS - Round II, https://www.ggp-i.org/data/generations-and-gender-survey/ggs-round-2/ (최종 접속일: 2026.9.02.).

어져 왔다. 2025년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한국·대만·노르웨이·독일의 GGS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국제비교 세션을 구성하고, GGP 총괄책임자(Director)인 Anne H. Gauthier 교수의 해외 초청강연을 개최하는 등 국제비교 연구를 위한 학술교류도 확대하였다(조선미 외, 2025:53, 68).

올해 양 기관이 체결한 MOU는 한국가족패널의 국제비교 데이터 생산과 공동연구 참여를 연계함으로써, 국내 가족·성평등 연구와 GGP 국제연구 네트워크 간 협력의 접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본원은 국제비교 데이터의 생산주체로 참여하여 국제 연구자들의 비교연구 수행에 기여하는 한편, 공동연구에서 도출된 성과를 국내 가족·인구정책 연구에 다시 활용하는 환류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에서는 한국가족패널의 GGS 참여가 한국의 가족·젠더 변화를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데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이번 MOU를 계기로 확대된 연구협력과 국제비교 가족·성평등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한국가족패널과 GGP: 한국의 가족·성평등 변화를 국제비교로 읽기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서도 성평등과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고려가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2026년 9월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은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성평등 실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도 정책과제로 포함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2항 및 제10조). 이러한 변화는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인구정책의 방향을 가족구성의 다양성, 일과 돌봄, 생애과정 전반의 성평등 여건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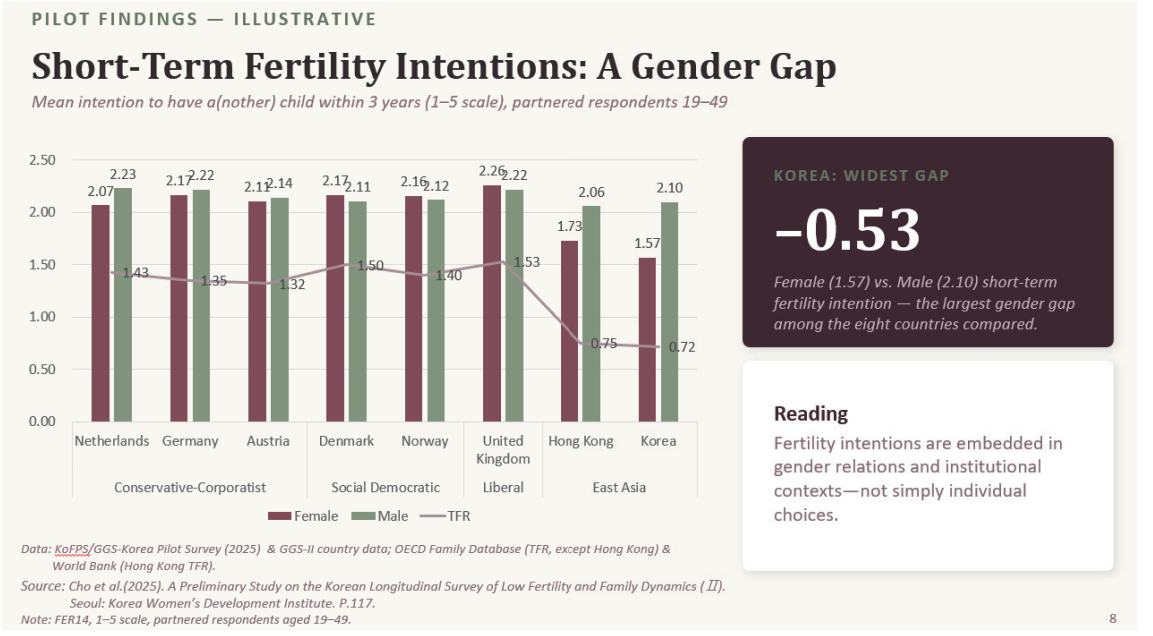
특정 시점의 인구지표와 실태만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개인의 삶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나타나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가족구성에 대한 전망은 이후의 연애·결혼 등 파트너십과 출산, 일자리 진입과 이동, 돌봄부담과 주거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를 둘러싼 제도적 조건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가족구성에 대한 개인의 전망과 실제 생애경로가 어떠한 조건에서 변화하는지를 장기간 추적할 수 있는 종단자료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가족패널의 2024~2025년 예비조사 결과를 포함한 GGS 참여국 자료를 활용한 출산의향 비교는 가족구성과 생애전망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1]은 파트너가 있는 19~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향후 3년 이내 출산의향(자녀를 가질 의향)을 비교한 결과이다. 한국 여성의 출산의향은 1.57점으로 비교대상 8개국 중 가장 낮은 반면, 남성은 2.10점으로 나타나 성별 격차가 가장 크게 확인되었다. 홍콩에서도 여성 1.73점, 남성 2.06점으로 유사한 성별 차이가 나타난 반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남녀의 출산의향 수준이 유사하였다(조선미 외, 2025:174-176).

국가별 차이는 출산의향의 평균 수준뿐 아니라

3)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구전략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인구전략기본법 (최종 접속일: 2026.9.28.).

동일한 가족구성 전망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양상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의 경우 향후 출산을 위한 경제적 여유, 주거여건, 일·가족양립, 보육서비스,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출산조건의 충족 가능성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하였으며, 특히 일·가족양립과 보육서비스,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제도적 지원과 관련된 항목에서 유의한 성별 차이가 나타난 바 있다(조선미 외, 2025:177–179). 이러한 결과는 출산의향의 성별 차이를 개인의 선호 차이만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해당 국가의 가족구성을 둘러싼 일·돌봄의 제도적 여건에 대한 전망을 함께 분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자료: 조선미 외(2025:174–176)의 분석결과를 조선미(2026.7.6.)에서 수정·재구성하여 제시함.

[그림 1] 향후 3년 이내 출산의향의 성별 차이: 8개국 비교

GGS 자료가 축적되면 현재의 국가 간 비교를 개인의 생애과정 변화를 추적하는 종단적 국제비교로 발전시킬 수 있다. 예컨대 1차 웨이브 조사에서 확인된 출산의향과 출산조건에 대한 인식이 이후 파트너십과 출산, 일과 돌봄, 주거여건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추적함으로써 가족구성에 대한 전망과 실제 생애경로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주요 국가에서 생애여건이 형성되는 방식과 이에 따른 생애경로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향후 국내 가족·인구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조건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가족패널과 GGP: 조사협력에서 공동연구로[4)]

이번 MOU의 주요 함의는 한국 GGS의 조사수행과 데이터 구축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양 기관의 협력범위를 국제비교 연구와 공동연구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협약에는 한국가족패널과 GGP의 연계를 위한 조사방법론 및 설문도구의 표준화, 국제비교 연구, 연구성과의 정책 활용과 확산, 연구자 교류와 공동 워크숍·교육 프로그램, GGP 네트워크 활동 참여 등이 주요 협력내용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기존 서비스·데이터 협약에 따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하고, 조사자료의 품질과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연구협력을 지속한다는 방향도 제시되었다.

MOU에서 제시된 협력방향은 2026년 7월 6~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연구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7월 6일(월)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NIDI의 연구현황, GGP의 국제 연구 인프라, 한국 GGS의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기관별 발표와 연구성과 공유가 이루어졌다. Helga A.G. de Valk 교수(NIDI 소장)는 가족·젠더, 노동과 인구변동, 이주, 데이터 인프라 등 NIDI의 주요 연구영역과 정책연계 활동을 소개하고, GGP 조정기관으로서 국제비교 데이터 구축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온 경험을 공유하였다. Anne H. Gauthier 교수(GGP 총괄책임자)는 GGP의 운영체계와 국제비교 데이터 구축, 참여국 네트워크 및 향후 연구방향을 소개하였다. 한국 연구진은 한국가족패널과 GGS-Korea의 조사설계 및 추진경과와 함께, 예비조사 자료를 활용한 출산의향과 출산여건의 국제비교 분석결과를 공유하였다.



MOU 체결식



GGP 연구 인프라 소개

일시 및 장소: 2026년 7월 6일, 네덜란드 헤이그 NIDI

[그림 2] KWDI-GGP 연구협력 MOU 체결 및 국제연구 협의

4) 이 절의 MOU 체결 및 2026년 7월 6~7일 연구협의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MOU 체결 현황과 공개 출장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MOU 체결, 네덜란드 학제간인구학연구소(NIDI) 주관 '세대와 젠더 프로그램(GGP)', https://kwdi.re.kr/about/mou.do?idx=124515&p=1 (최종 접속일: 2026.9.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6). NIDI 업무협약 체결 및 국제협력회의 개최를 위한 네덜란드 출장 결과보고서, https://www.kwdi.re.kr/research/traReportView.do?idx=134181&p=1 (최종 접속일: 2026.9.2.).

7월 7일(화)에는 한국 GGS의 조사운영과 국제비교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한국가족패널 연구팀과 GGP 중앙 허브팀 간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국 연구진은 한국가족패널 예비조사와 1차 웨이브 조사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GGP 연구진과 문항 구성과 조사대상 범위, 응답범주, 패널 접촉·유지 등 국가 간 비교가능성과 패널 운영에 관한 조사방법론적 쟁점을 논의하였다. GGP 중앙허브에서는 문항개발과 필드워크, 데이터 처리와 문서화, 자료 공개로 이어지는 GGS의 데이터 생애주기와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 체계를 공유하였다.



GGS Korea 추진현황 발표



GGP 연구팀과 데이터·공동연구 협의

일시 및 장소: 2026년 7월 7일, 네덜란드 헤이그 NIDI

[그림 3] 한국가족패널·GGS Korea 조사설계와 예비조사 결과 공유

GGP 연구팀은 GGS 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연구사례를 발표하였다. 주거소유와 첫 출산의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11개 유럽국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소유와 출산의향 간 관계가 국가별 주거환경과 관련 규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어서 싱글 상태(singlehood)[5]의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성별·연령별·출산욕구별·국가별 차이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한국 연구진은 두 연구와 관련하여 높은 주거비용과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 주거와 혼인·출산의 관계, 청년층의 파트너십 의향과 성별 차이 등 한국의 연구맥락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연구사례는 가족구성과 생애전망을 주거제도, 파트너십 규범, 성평등 여건 등 사회적 조건과 연계하여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연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5) 혼인 또는 1인가구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배우자·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주거소유와 첫 출산의향
(Daniel van Wijk, NIDI)



싱글 상태(Singlehood)와 생활만족도
(Lonneke Van den Berg, NIDI)

일시 및 장소: 2026년 7월 7일, 네덜란드 헤이그 NIDI

[그림 4] GGP·NIDI 연구진과 국제비교 공동연구 협의

국제비교 연구사례 발표 이후에는 후속 연구협력 방안도 검토하였다. 양측 연구진은 한국가족패널 자료를 활용한 가족구성과 성평등 분야의 국제비교 연구 방향을 검토하고, 공동연구와 학술교류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하였다.

4. GGS 참여와 가족·젠더 연구의 확장

해외의 가족·인구정책 연구와 국제기구의 논의에서는 출산율의 단기적 변화만으로 가족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접근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Gauthier와 Gietel-Basten(2025)은 가족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대체로 크지 않고 국가별 제도와 정책 맥락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책의 성과를 출산율 변화와 함께 가족의 삶과 일·가족 양립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원하는지를 포함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UNFPA의 「세계인구현황보고서 2025 (State of World Population 2025)」 역시 출산율을 둘러싼 인구문제를 출산율 수준보다 개인이 원하는 가족구성과 재생산에 관한 선택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를 '재생산 자율성(reproductive agency)'으로 설명하며, 경제적 불안정, 성차별적 규범, 파트너와 공동체의 지원 부족, 보육·교육서비스 접근의 제약 등을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주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UNFPA, 2025:4-5).

UNFPA는 인구 규모나 구성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인권에 기반해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인구 회복력(demographic resilience)'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구변화를 위기 자체로만 바라보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인구자료와 증거기반 정책을 토대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접근을 의미한다(UNFPA, 2025:18, 50).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가족구성과 생애전망을 실현하거나 제약하는 사회

적 조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가족정책 연구의 측정대상과 근거자료의 구축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출산율과 같은 결과지표와 함께 가족구성 의향과 생애전망, 이를 둘러싼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구성 의향과 관련 여건에 대한 인식에서 뚜렷한 성별 격차가 나타난 만큼, 그 차이의 지속과 변화 양상을 생애과정에 걸쳐 장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족종단 자료는 개인이 원하는 가족생활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파악하고, 성별·세대별로 상이한 삶의 전망 속에서 공통의 정책과제로 다루어야 할 여건을 구체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을 출산율 수준 자체보다 사회적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과 성평등한 생애기회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설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한국가족패널 자료를 안정적으로 축적하고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GGP 연구진과의 공동연구와 학술교류를 통해 한국 자료의 국제적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 운영되는 패널조사에서는 사회변화를 반영하면서도 조사설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GGP와의 협력은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적 기준과 조사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가족패널의 조사 정체성과 자료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구전략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인구전략기본법 (최종 접속일: 2026.9.28.).

조선미. (2026.7.6.). The GGS-Korea Project: Korean Family Panel Survey (KoFPS) [발표자료]. NIDI × KWDI MOU Signing, The Hague, Netherlands.

조선미·한진영·김은지·주재선·정성미·이다경·이서현·박민규·김수정·이근복·이혜정. (2025). 저출생 대응 가족패널조사 사전연구(Ⅱ).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MOU 체결, 네덜란드 학제간인구학연구소(NIDI) 주관 '세대와 젠더 프로그램(GGP)', https://kwdi.re.kr/about/mou.do?idx=124515&p=1 (최종 접속일: 2026.9.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6). NIDI 업무협약 체결 및 국제협력회의 개최를 위한 네덜란드 출장 결과보고서, https://www.kwdi.re.kr/research/traReportView.do?idx=134181&p=1 (최종 접속일: 2026.9.2.).

Gauthier, A. H. & Gietel-Basten, S. (2025). Family policies in low fertility countries: Evidence and reflection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51(1), 125–161

Generations and Gender Programme. (2026.7.8.). GGP Korean National Team Visits GGP Central Hub, https://www.ggp-i.org/news/general-news/ggp-korean-national-team-visits-ggp-central-hub/ (최종 접속일: 2026.9.28.).

Generations and Gender Programme, GGS – Round II, https://www.ggp-i.org/data/generations-and-gender-survey/ggs-round-2/ (최종 접속일: 2026.9.28.).

UNFPA(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025). *The Real Fertility Crisis: The Pursuit of Reproductive Agency in a Changing World. State of World Population 2025*. New York: UNFPA.